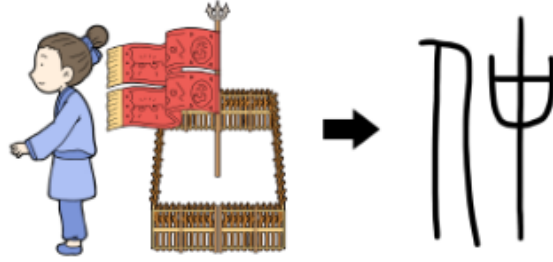


3(2)  
-  
381

회의문자 ①



仲

버금  
중(:)

仲자는 '버금'이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仲자는 人(사람 인)자와 中(가운데 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中자는 '가운데'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仲자는 이렇게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中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중간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仲자는 본래 형제 중에 '둘째'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둘째가 형과 아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仲자는 '중간'이나 '중재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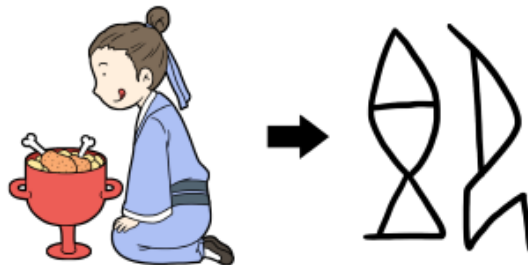
소전

仲

해서

3(2)  
-  
382

회의문자 ①



卽

곧 즉

卽자는 '곧'이나 '이제', '가깝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卽자는 卽(고소할 금)자와 卽(병부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卽자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卽자의 갑골문을 보면 식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卽 그려져 있었다. 식기에는 담겨있는 음식을 막 먹으려는 모습이다. 그래서 卽자의 본래 의미는 '이제(먹는다)'였다. 하지만 후에 '먹다'라는 뜻은 사라지고 '곧'이나 '이제'라는 뜻만 남게 되었다. 卽자는 식기 앞에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卽

갑골문

卽

금문

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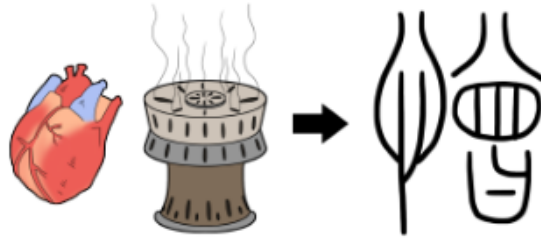
소전

卽

해서

3(2)  
-  
383

회의문자 ①



憎

미울 증

憎자는 '미워하다'나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憎자는 心(마음 심)자와 曾(일찍 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曾자는 음식을 찌는 조리 도구를 그린 것이다. 曾자를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린 찜기 위로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憎자는 이렇게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의 曾자를 응용한 글자로 분노가 표출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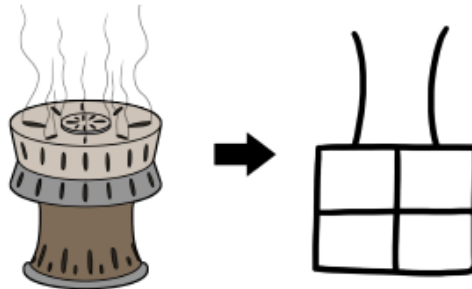
소전

憎

해서

3(2)  
-  
384

상형문자 ①



曾

일찍 증

曾자는 '일찍'이나 '이미', '이전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曾자는 冂(가로 알)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曾자는 구멍이 있는 조리 도구의 일종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曾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떡이나 쌀 따위를 찜 데 쓰는 시루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의 曾자는 찜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曾자가 '일찍'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瓦(기와 와)자를 더한 甞(시루 증)자가 '시루'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曾

갑골문

曾

금문

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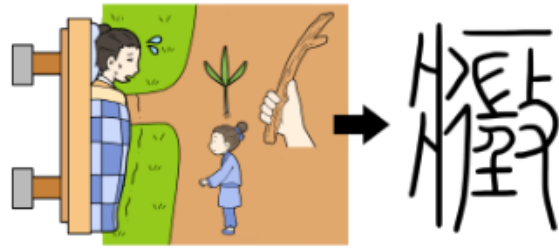
소전

曾

해서

3(2)  
-  
385

회의문자 ①



症

증세  
증(:)

症자는 '증세'나 '증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症자는 疒(병들 념)자와 正(바를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癰(적취 징)자가 '증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癰자는 '몸 안에 기가 쌓여서 아프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正(바를 정)자가 들어간 症자가 '증세'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正자가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으니 症자는 '병을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이다.

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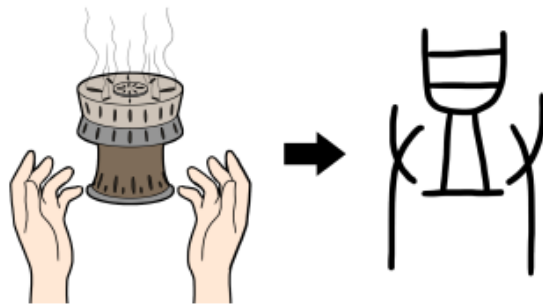
소전

症

해서

3(2)  
-  
386

상형문자 ①



蒸

질 증

蒸자는 '찌다', '데우다', '김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蒸자는 𩵓(풀 조)자와 𩵓(김 오를 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蒸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손으로 냄비를 잡은 𩵓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음식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냄비 양쪽에 점이 찍힌 𩵓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찜통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수증기가 𩵓자로 바뀌었고 여기에 火(불 화)자가 더해지면서, 찜통에 넣은 음식에 열이 가해지고 있음을 𩵓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니 蒸자는 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𩵓

갑골문

𩵓

금문

𩵓

소전

蒸

해서

3(2)  
-  
387

상형문자 ①



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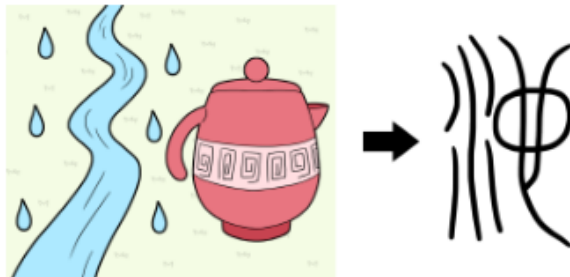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止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갈 지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88

회의문자 ①



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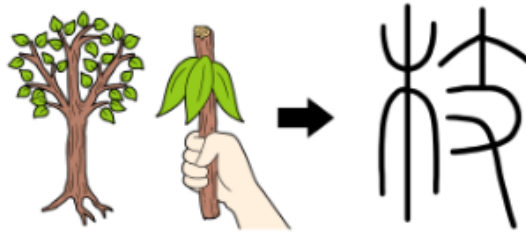
池자는 '연못'이나 '도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池자는 水(물 수)자와 也(또 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池자에 쓰인 也자는 주둥이가 있는 주전자를 그린 것이다. 주전자는 물을 담거나 흘려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池는 물이 흘러들어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는 '연못'이나 '도랑'을 표현하기 위해 주전자를 그린 也자를 응용한 글자라 할 수 있다. 也자는 뱀의 형상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주전자를 뜻하는 匱(주전자 이)자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물을 담는 주전자를 그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못 지

소전	해서

3(2)  
-  
389

회의문자 ①



枝

가지 지

枝자는 '가지'나 '버팀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枝자는 木(나무 목)자와 支(가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支자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버티다'나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다. 枝자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支자를 응용한 글자로 여기에 木자를 더해 '나무의 가지'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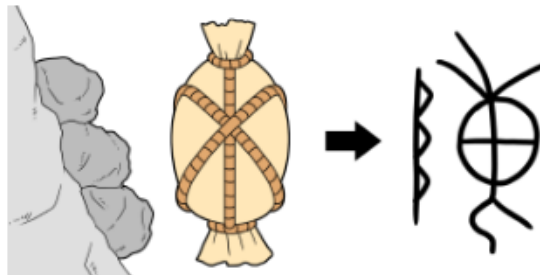
소전

枝

해서

3(2)  
-  
390

회의문자 ①



陳

베풀  
진:/목을  
진

陳자는 '베풀다'나 '늘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陳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東(동녘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東자는 씨앗을 담은 보따리를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陳자는 이렇게 보따리를 그린 東자를 응용해 바닥에 짐을 풀어 늘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베풀다'나 '늘여놓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陳

금문

陳

소전

陳

해서